


자료명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 개최	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
엠바고	3월 14일(화)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3/13(月) 13:30부터)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
문의처	ESG경영실 윤철민 실장(010-2269-9842), 김범준 과장(010-2796-0015)	

공시의무 앞둔 ESG... 대응해법은?

- 商議, 13일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 포럼’ 개최...EU ESG공시 의무화 등 최근 ESG 현안 논의
- 박재흠 EY한영 전무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 도입...공시 신뢰성 확보위한 내부통제 체계 중요”
-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이 우선”
- 윤용희 율촌 변호사 “최근 생물다양성 이슈 부각...기업들, 생물다양성 리스크 분석·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년을 맞아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 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최대 화두인 ESG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면서, “특히 EU 공시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ESG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또한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일반 참가자들도 4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도입...공시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통제 체계 중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 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EU 내 법인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며, “이 경우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 고 밝혔다.

* CSRD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또한 박 전무는 “ESG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과제’ 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대상이 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끝으로 정 연구위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산업별 공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CBAM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이슈 부각...기업들, 생물다양성 리스크 분석·대비해야

마지막 발표인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 을 발표한 윤 변호사는 “작년말 열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0여개국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합의했고, 향후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인 TNFD*가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기준이 ISSB 글로벌 공시 표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요인/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ESG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TNFD :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심포지움에 참석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 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ESG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ESG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 말했다. 

□ 일시 및 장소 : 3.13(월) 13:30~17:3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지하 2층)

□ 주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최영 포스코 상무, 조정훈 신한금융그룹 본부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옥용식 고려대 교수, 박원석 중앙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등

□ 진행순서

[1부]

- 13:30~13:40 인사말씀(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위원장, 남경모 산업부 과장)
- 13:40~14:25 [주제1] 최근 ESG 주요 현안과 시사점
 - ①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박재흠 EY한영 전무)
 - ②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과 과제(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③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14:25~15:10 전문가 토론 / 질의응답
(최영 포스코 상무, 조정훈 신한금융그룹 본부장, 박원석 중앙대 교수, 옥용식 고려대 교수,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15:10~15:20 커피 브레이크

[2부]

- 15:20~16:50 [주제2]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과 우리기업 대응과제
 - ① 독일·EU 공급망실사 주요이슈와 기업 대응방안(이영석 한국ESG크레딧 총괄)
 - ② 중소/중견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지원제도(김현민 대한상의 센터장)
 - ③ ESG 금융 인센티브 활용전략(이재혁 대한상의 연구원)
- 16:50~17:30 전문가 토론 / 질의응답